

각 지역협의회 개정환경법

부산협의회

부산협의회(회장·김효실)는 부산일보10층 소강당에서 지난 2월 9일 개정 환경법 해설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장준영직전회장이 지난 2월 2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영책 기본법 등 6개 법안과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해설이 있었다. 이어 참석한 회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인천협의회

인천협의회(회장·유문하)는 지난 2월 19일 인천시청 대강당에서 개정환경보전법에 대한 해설 세미나를 가졌다.

개정 강화된 법규내용 중 각 기업체에서 필요하거나 문제가 발생될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이날 해설에는 서울지방환경청 박명술 지도과장이 강사로 초빙됐다.

이밖에 '91년도 인천시 시정방향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경기협의회

경기협의회(회장·이상호)는 지난 2월 11일 안양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환경관계법규해설 및 법개정에 따른 업무개편 방향 교육을 가졌다.

백50여 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이날 세미나에는 환경처 수질제도과 김영화 과장, 대기제도과 김원민사무관 등이 강사로 초빙되어, 종전의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을 중심으로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 보전법 해설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였다.

경남협의회

경남협의회(회장·하중호)는 지난 2월 9일 부산지방환경청 지도과 허만천사무관을 강사로 초빙, 최근 대폭 개정강화된 환경관계법규에 관한 해설 세미나를 창원공단회관에서 가졌다.

각 기업체에 해당될 사항 및 문제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지도단속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이날 세미나에는 환경영업계 관련 종사자 1백10여명이 참가했다.

대전·충남협의회

대전·충남협의회(회장·이상윤)는 지난 2월 27일 천안상공회의소에서 환경관리인 기술세미나를 가졌다.

개정환경법규에 관한 세미나를 주된 주제로 다룬 이날 세미나에는 대전지방환경청 김충배계장과 동환경청 청주출장소 반문홍 계장이 강사로 초빙되었다. 세미나에 이어 동 협의회는 대전지방환경청 등과 함께 천안독립기념관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었으나 우천관계로 실시하지 못했다.

경기서부협의회

경기서부협의회(회장·유영관)는 지난 2월 27일 부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최근 대폭 개정된 환경관련법에 대한 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의 강사로는 부천시청 환경보호과 원세훈 지도계장과 김선경 관리계장을 초빙, '91년도 시정방향과 환경관련 법규 해설 및 지도점검 방향을 들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임원진 선출이 있었다.

해설 세미나 개최

대구·경북협의회



대구·경북협의회(회장·김남환)는 환경관련법 규 개정에 따른 해설세미나를 지난 2월 12일 대구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개최하였다.

회원들을 비롯해 환경업계 종사자 등 4백여 명이 참가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구지방환경청 지도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대기,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 진동규제법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한 해설을 들었다.

강원협의회

강원협의회(회장·권영준)는 지난 2월 28일 원주카톨릭센타에서 개정환경법에 대한 해설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개정환경법에 대한 자세한 해설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원주지방환경청 주요시책방향」 및 「'91년도 환경오염지도단속」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90년업무결산보고 및 임원선출이 있었는데, 새 임원진은 아래와 같다.

직위	성명	근무처
회장	권영준	정남식품(주)
부회장	경수	한림대
"	김충희	동인병원
"	지용만	원주기독병원
"	김진성	한국CE플라스틱스
총무	우숙	한일전기
"	김금여	금성콘크리트
감사	권세일	진로위스키
"	김원일	삼진환경

광주·전남협의회



광주·전남협의회(회장·김왕근)는 개정환경 보전법 설명회 및 제4차 정기총회를 지난 2월 11일 광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가졌다.

3백여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광주지방환경청 고재의계획과장과 강사로 초빙, 법규해설을 가졌으며 정기총회에서는 환경담당교수 3인의 고문위촉 및 총무1인을 충원,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동환경청 이우종청장의 축사도 있었다.

한국생물공학회·한국화학공학회

생물공학공동 심포지움

한국생물공학회(회장·김재형)와 한국화학공학회 생물화공부문위원회(위원장·장호남)는 지난 2월 28일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Biotechnology 진보와 정밀화학에의 응용'에 대한 생물공학공동 심포지움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국내외의 산·학·연 각 연구 주체에 의한 최근의 연구 및 기술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방향제시를 하였는데, 지형준(서울대학교 천연물연구소)교수의 '식물자원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개발' 및 정숙현(두산 중앙연구소)박사의 '효소를 이용한 정밀화학품의 생산' 등 미생물의 응용범위를 폭넓게 다루었다.